

교육

고3 수험생 수시 논술전형 대비법

지원대학 출제경향 파악 실전 연습

모의고사 성적 나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는 대학 지원하라

여름방학을 맞은 고3 수험생 중 상당수가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모집정원의 61%를 수시에서 모집하기 때문이다. 수시의 평가요소는 크게 학생부의 교과성적, 비교과성적, 대학별고사이다. 이 중 교과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비교과나 대학별고사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술은 로또가 아니다. 꾸준히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면 단기間に 성적을 올릴 수 없다. 대학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의 도움으로 수시 논술전형 지원에 앞서 점검해야 할 부분을 살펴봤다. <6월 성적 기준으로 정시지원 가능대학 살펴라>=지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주를 살펴보고도 하자. 수시지원 시에는 최소한 정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보다 상위대

학에 지원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대학의 경우 지원 참고표(배치표)나 온라인 모의지원 등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논술 시험이 수능 이전에 실시될 경우 수능 공부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논술을 실시하는 대다수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하고 있으며, 지원해놓고 논술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수능이 논술전형에서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술 준비는 꾸준히 해왔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못하다면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학에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올해 논술 실시 대학 중 경희대 논술우선선발

(30%, 1차), 동국대 일반전형(1차), 서강대 일반전형(1차), 한국외대 일반전형(1차) 등은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논술이 수능 전에 치러지므로 논술고사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학생부 교과성적도 중요한 평가요소다>=논술100%전형이 아니라면 논술로 학생부 성적을 만회해 보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매년 논술전형은 지원율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고려대 46.31:1, 서강대 1차 29.02:1, 2차 54.06:1, 성균관대 44.57:1, 연세대 46.22:1, 중앙대 40.72:1, 한양대 60.77: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때문에 교과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은 논술 실력이 매우 월등해야만 합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통해 논술 준비가

가능한 지 판단하라>=논술 문제는 각 대학별로 문제유형이 다르다. 또한 최근 논술의 추세도 단순히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형태가 아니라, 때문에 출제경향이 다른 여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나 모의 논술을 풀어보고 출제의도에 맞게 작성했는지 등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논술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논술보다는 수능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이 좋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분석실장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높은 경쟁률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으로 인해 합격해야만 합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환산점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통해 논술 준비가



22일 오후 광주교육대에서 열린 '전국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합동 입시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와 수험생, 고교 교사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교대와 중앙대 등 전국 9개대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나와 청중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이공대학 프랜차이즈 창업과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조선이공대학 '프랜차이즈서비스 창업과'는 창업 예정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9일~10일까지 4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와 업종 전환 예정자에게 맞춰, 이론과 현장실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이중 1차 프로그램인 '인기업 미스터리 쇼퍼 양성과정'의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는 일반 고객처럼 가장해 점포에 들어가 서비스 수준을 체크하고 개선할 점을 기업에 제안하는 신종 직업이다. 수강신청은 프랜차이즈서비스창업과로 전화(062-230-8410) 또는 팩스(062-230-8413), E-mail(idydzhd-di@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창업교육

Table with 2 columns: 일시 (Date/Time) and 내용 (Content). It lists four training programs: 1st 'Innovative Mystery Shopper Training Course', 2nd 'Small Business Success Course', 3rd '9-10.8 Franchise Training Course', and 4th '10.18-11.5 Multi-Category Franchise Course'.

입학사정관에 쓰린 논 22일 오후 광주교육대에서 열린 '전국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합동 입시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와 수험생, 고교 교사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교대와 중앙대 등 전국 9개대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나와 청중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교육역량강화사업 을 49억원 지원 받아

취업 촉진·글로벌 인재육성 집중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중)가 완벽한 취업지원 시스템과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에서 사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교양 교육 강화와 글로벌 인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조선대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조선대학교의 'PRIDE CHOSUN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의 핵심 가치로 P(Pioneer's : 개척정신)·R(Regional : 지역과 함께하는)·I(Innovative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D(Dreaming : 함께 미래를 꿈꾸는)·E(Energetic : 보다 역동적인)조선대원유·국제화·전일교원 확보·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 1인당 교육비·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인상

수준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나타내는 8개 핵심지표로 구성된 포인터 교육지표 획득점수에 의해 우수 대학을 선정·지원한다. 조선대는 올해 49억 3200만원을 지원받아 금역 기준 광주·전남지역 사립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09년에는 57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사립대학 중 1위, 전국 4년제 대학 중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조선대학교의 'PRIDE CHOSUN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의 핵심 가치로 P(Pioneer's : 개척정신)·R(Regional : 지역과 함께하는)·I(Innovative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D(Dreaming : 함께 미래를 꿈꾸는)·E(Energetic : 보다 역동적인)조선대원유·국제화·전일교원 확보·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 1인당 교육비·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인상

취업진로 멘토 교수제 도입 등의 세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취업촉진 사업'은 기업 인턴십 지원제, 고용창출시스템 구축, 창업·취업동아리 지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취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새로운 교수법의 수용 및 확산, 수업방법의 다양성 확보, 강의의 질 개선 도모 등 대학 교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호중 조선대 총장은 "개성교육·생산교육·영재교육이라는 3대 건학이념과 그 동안 이뤄온 교육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인성과 문화적 소양이 풍부하고, 전문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

상일여고 학생 11명 美 아이비 리그 탐방

7박8일간 캠퍼스 투어·간담회

자율형 공립고인 상일여자고등학교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 동안 미국 '아이비 리그(IVY League)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1명의 학생과 인솔교사가 참여하는 이번 탐방은 세계와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리더 육성, 미래에 대한 설계 등의 리더 마인드를 위한 것으로, 자율형 공립고 교육과정 중의 하나라고 상일여고는 설명했다. 참가 학생은 성적·생활·봉사활동 및 학생 추천 등으로 선발됐다. 탐방단은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미국 4대 도시를 순방하며 예일, 하버드, MIT, 프린스턴, U-PENN, 컬럼비아대 등 6개 대학의 캠퍼스 투어와 현인재학생 간담

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미국 자연사 박물관, 항공우주 박물관, 자서전 갤러리를 견학하고 시터투어도 하게 된다. 이 학교 박도훈 교장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과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는 참여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개교한 상일여고는 광주를 대표하는 명문 공립여고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학교 전국 벤치마킹 3호로 지정되는 등 학교시설도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과기원·카이스트·포스텍 3개교

창업보육 활성화 손 잡았다

벤처창업 등 공동대응

창업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공계 명문대학들이 손을 잡았다. 광주과기원(GIST, 총장 선우중호)은 최근 카이스트(KAIST, 총장 서남표), 포스텍(POSTECH, 포항공과대, 총장 백성기)과 3개교간 업무협약을 맺고,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세 기관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 발표 등으로 크게 개선된 창업환경과 정보기술 시장의 변화를 타고 활발해지는 벤처 창업 열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스트 창업기술사업화센터(센터장 김홍국)·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순근)·포스텍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순주)는 상호 간 창업보육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입주기업간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해의 진출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국 지스트 창업기술사업화센터장은 "중소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 기관간 협력활동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nnambeum Real Estate (주)'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a website link.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C MAR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dern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it as a high-quality APT building with 3 floors above ground and 5 floors below grou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YH Well-being life' products, including 'GASIO GAKKI', 'SHIKRYU', 'SANGHWA DABO', and 'SANGHWA JUNG'. It features images of the products and text describing their benefits and availability.